

단발령 보릿고개
 금주령 봉급
 호랑마마

한국의 사회문화

독신

건물주

내로남불

명퇴

회식

김영재



도시출판 윤성사

한글의

사회 문화



도시출판 윤성사

머리말

이 책은 독자와 저자가 “함께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작성했다. 깊은 역사를 지닌 한국의 사회 문화는 수많은 사람과 현상이 얹혀 있다. 거미줄처럼 엮어진 이 주제를 마치 “테트리스” 게임을 하듯이 맞추려고 시도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첫째, 어릴 적부터 한국 정치와 경제 분야는 많이 배워왔지만 상대적으로 한국 사회와 문화에 관한 내용은 배운 적이 별로 없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정치 경제는 언제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고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 사회와 문화는 누군가 가르쳐준 것 같으면서도 막상 무엇을 배웠는지 표현하기 어렵다. 내가 사는 곳이 한국 사회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와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서 그것을 따로 배우기도 이상하고 가르치기도 어색하다.

둘째, 현재 청소년과 청장년층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살아왔고 앞으로 그릴 것이다. 현재 생활이 매우 바쁘고 복잡하기 때문에 불과 10년 전, 20년 전 한국 사회 문화를 이해하거나 고민할 일이 별로 없다. ‘지금 살기도 바쁜데 굳이 옛날 사회 문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나?’, ‘우리나라가 저런 시절이 있었어?’, ‘내가 어릴 적에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희미하네.’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문은 당연하다. 굳이 이

해하려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내가 5살짜리 어린이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각계각층의 사람과 폭넓게 대화하다가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었다. 나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당연히 이 정도는 알겠지!'라고 신나게 말하는데 상대방은 '저 사람은 무슨 있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하지?'라는 표정으로 바라본 적이 적지 않았다. 반대로 어르신들에게 '요새 아이들에게 유행하는 이거는 아시겠지?'라고 열변을 토하는데 상대방은 '그게 뭐야?', '이해가 안 돼'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해서, 세대 차이가 과거보다 더 벌어지고 있었다. 만약 이런 차이가 지속된다면 서로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화젯거리)'가 희미해지면 그만큼 대화는 단절되고 의미를 공유할 수 없다. 세대 간 단절은 고립을 불러오고 개인 간 단절로 이어진다. '우리끼리 놀자', '저 사람하고 답답해서 대화가 안 돼'라고 말하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별로 이로울 것이 없다.

넷째, 대학에서 7년 동안 다양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사적(私的, private) 대화를 끊임없이 하다 보니 '불과 10년 전 한국 사회 문화'를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일처럼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하물며 내가 70년대, 80년대 사례나 사건을 말해주면 '뭐지?'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소설에 나온 거 아니에요?',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것 같은데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나는 학생들의 이런 반응이 10년 전 한국 사회, 20년 전 한국 문화를 잘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나타난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성장하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한국 사회 문화는 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층을 서서히 벗어나서 장년층으로 진입하는 나에게 한국 사회 문화를 청년 시각에서 글을 적고 싶었다. 1983년에 태어난 나는 영광스러운 '88 서울올림픽',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외환위

해하려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내가 5살짜리 어린이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각계각층의 사람과 폭넓게 대화하다가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었다. 나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당연히 이 정도는 알겠지!’라고 신나게 말하는데 상대방은 ‘저 사람은 무슨 있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하지?’라는 표정으로 바라본 적이 적지 않았다. 반대로 어르신들에게 ‘요세 아이들에게 유행하는 이거는 아시겠지?’라고 열변을 토하는데 상대방은 ‘그게 뭐야?’, ‘이해가 안 돼’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해서, 세대 차이가 과거보다 더 벌어지고 있었다. 만약 이런 차이가 지속된다면 서로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화젓거리)’가 희미해지면 그만큼 대화는 단절되고 의미를 공유할 수 없다. 세대 간 단절은 고립을 불러오고 개인 간 단절로 이어진다. ‘우리끼리 놀자’, ‘저 사람하고 답답해서 대화가 안 돼’라고 말하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별로 이로울 것이 없다.

넷째, 대학에서 7년 동안 다양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사적(私的, private) 대화를 끊임없이 하다 보니 ‘불과 10년 전 한국 사회 문화’를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일처럼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하물며 내가 70년대, 80년대 사례나 사건을 말해주면 ‘뭐지?’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소설에 나온 거 아니에요?’,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것 같은데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나는 학생들의 이런 반응이 10년 전 한국 사회, 20년 전 한국 문화를 잘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나타난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성장하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한국 사회 문화는 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층을 서서히 벗어나서 장년층으로 진입하는 나에게 한국 사회 문화를 청년 시각에서 글을 적고 싶었다. 1983년에 태어난 나는 영광스러운 ‘88 서울올림픽’,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외환위

기 시절 IMF(국제통화기금), 온 국민이 하나였던 '2002 한일 월드컵'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어릴 적부터 30대 초반까지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병을 피하려고 일찍 결혼한 할아버지, 6·25 전쟁은 비참한 것이라고 늘 말씀하신 할머니, 60-80년대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의 흐름에서 살아왔던 아빠와 엄마의 말을 매일 듣다보니 한번쯤 한국 사회 문화를 생각하고 정리할 시점이라고 여겼다. 이밖에도 알고 지내는 어르신과 중년층으로부터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를 더 젊고 어린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경험이 풍부한 장년층 이상의 분들이라면 '대한뉴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별이 빛나는 밤에', '가요 톱10' 등을 떠올리면서 아련한 추억을 되새길 수 있다. 이 글은 저자 혼자만이 아니라 "의미를 나누는", "함께 하는" 책이다.

책의 구성은 한국 사회 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분야를 12가지로 정했다. 한 가지를 깊게 적기보다 여러 분야를 넓게 적었다. 개인 차원으로 언어, 옷, 술, 돈으로 골랐고 집단 차원에서 결혼과 장례, 가족, 주거, 직장을 뽑았다.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대중, 교육, 종교를 살펴봤다. 마지막으로 마음은 한국인의 감정을 가리킨다. 각 영역은 사실과 의견이 섞여있기도 하며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을 부분도 있다. 드라마, 영화, 소설,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야기 등을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내용을 검색하거나 동영상을 본다면 더 생생하게 한국 사회 문화를 알 수 있다. 각 영역의 마지막에는 지극히 주관적인 저자의 생각과 물음을 보충 설명처럼 적었으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이 책은 단순한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도 있지만 누군가와 소통할 때 더 경청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실용적 목적도 지니고 있다.

이 책을 쓰는데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신 은사님이자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류지성 교수님, 오래 전부터 글쓰기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윤영돈 박사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이야기 해주신 GD Company 노길용 대표님, 청소년 교육과 상담에 관한 솔직하고도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휴멘토리 조유경 대표님, 탁월한 사교성으로 많은 실적을 올린 AIA생명 Sales manager 김일권 님,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코칭전문가 류홍례 선생님, 대학 후배이자 현재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청소년과 교과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신 엄혜용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책을 발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윤성사 정재훈 대표님, 편집 담당 정정훈 팀장님, 영업 담당 주형준 팀장님에게 진심으로 고마울 뿐입니다. 

2018년 입춘

서대문 안산이 보이는 낡은 집

 씬

머리말	6
감사의 글	14
일러두기	16
들어가기	18
 1. 언어문화	 30
시대를 뛰어넘은 한국어	30
영원히 같이 있을 한자와 한글	32
강제로 정착한 일본어	35
우리말 살리기와 영어 섞어 쓰기	37
표준어의 친구, 사투리	39
“개”의 다양한 쓰임새	41
인터넷 언어의 시작, 모뎀과 광통신	44
특이한 북한의 문화어	46
만담과 아무 말 대잔치	47
 2. 의복문화	 50
신분, 개성, 계절이 혼합된 옷	50
재료가 중요한 한복	52
첫 화장은 연지곤지	53
꾸미고 싶은 마음, 장신구	54
한국인의 정서와 시각을 담은 탈	56
강제 단발령, 양복의 유입	57
미니스커트와 장발 단속	58
잇을만하면 나타나는 복고풍	60
불편한 라이벌, 명품과 짝퉁	61
교복에 이어서 과잠으로	62

마로 똑같은, 옷과 스타일	64
3. 음주문화	68
기-송-진-술	68
탁주와 소주, 주모에서 이모로	70
금주령, 마시지 말라고 해도 마세요	71
세금 약탈과 한국 술의 위기	73
보릿고개와 술의 대량생산	74
수입주, 국내 위스키 제조, 자도소주	74
술의 춘추전국시대	75
독주와 약술	76
술의 친구, 커피와 담배	78
4. 돈	82
생각과 감정을 움직이는 마법, 돈	82
상거래와 세금 수탈	84
와이로와 뇌물수수	85
모아서 잘 살 수 있어	88
근검절약과 투자증식의 미묘한 관계	89
해성같이 나타난 오렌지족과 야타족	90
금수저와 흙수저 사이	91
포인트, 마일리지, 가상화폐	93
5. 결혼장례 문화	98
통과의례, 민중과 떠	98
마을 공동체에서 식장으로	99
상부상조하는 축의금과 부의금	101
가장 큰 밀고 당기기, 혼수와 예단	102
잔칫상이 예식장으로	103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104
상여에서 자동차로, 피할 수 없는 장례	106
작은 결혼식과 무연고 묘지	107
기일을 지키는 제사와 민족대이동 명절 차례	108
영혼결혼식과 합동위령제	110
6. 가족문화	112
혈연과 숙명	112

족내촌, 집성촌, 이웃사촌	113
시대에서 시절드로, 고부 갈등	114
내리사랑의 결정체, 조부모와 손자녀	115
독신과 이혼	117
우랑아 신발대회와 신아재현정책	119
답이 없는 저출산 고령화	120

7. 주거문화

머물렀던 사람과 사계절	124
치열하게 고민한 토지세	127
유상몰수 유상분배, 집문서와 땅문서	129
계약의 완성, 인감과 서명	129
위치가 중요한 투기와 그린벨트	130
자녀 뒷바라지의 시작, 청약통장	131
신도시와 재개발의 주인공, 아파트	132
땅부자에서 건물주로	135

8. 직장문화

직장과 네트워크	138
출근 안 하고 칼퇴 했으면	139
쉬는 날이 얼마야? 달콤한 휴일	142
피할 수 없는 회식과 앞에서 못하는 뒷담화	144
독립해서 사장님으로 홀로서기	145
직장의 축, 임금과 복리후생	146
멀리 오래 쉬고 싶어요, 여행	147
어려운 취업, 불안한 이직과 전직	148
한 글자 차이, 은퇴와 명퇴	150

9. 대중문화

누구나 즐기는 대중문화	152
궁중예악과 전(傳)	153
지지직거리는 축음기와 흥이 넘치는 생음악	154
듣고 보는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관	156
정지되었지만 관심 많았던 금지곡과 금서	158
비디오 보다가 게임하고 노래방 가고	159
권투에서 프로리그로, 체육의 세계 진출	161
12개월 축제와 먹거리장터	161

10. 교육문화	164
공부해야 출세한다	164
가고 싶은 서당과 가야하는 국민학교	166
비평준화와 평준화, 인문계와 실업계	167
본고사, 학력고사, 수능, 수시	168
절대 안정 고3, 재수에서 장수로	169
배움만 30년, 어린이집부터 대학원까지	171
정규군인 공교육과 계릴라인 사교육	172
공무원 시험과 토익	174
11. 다종교문화	178
안 싸우는 다종교 국가	178
이어져 내려온 무속신앙	179
불교와 유교의 공존	180
천주교와 기독교의 전래, 사찰령과 탄압	180
적당한 거리 유지, 정부와 종교	181
기복과 대형화	182
12. 한국인의 마음	186
1미리 미리, 빨리 빨리	186
한(恨)	187
복(福)	188
무(無)	190
정(情)	191
귀찮음	193
죽겠어	195
홀가분하다	196
정리하며	198
참고문헌	203

10. 교육문화	164
공부해야 출세한다	164
가고 싶은 서당과 가야하는 국민학교	166
비평준화와 평준화, 인문계와 실업계	167
본고사, 학력고사, 수능, 수시	168
절대 안정 고3, 재수에서 장수로	169
배움만 30년, 어린이집부터 대학원까지	171
정규군인 공교육과 게릴라인 사교육	172
공무원 시험과 토익	174
11. 다종교문화	178
안 싸우는 다종교 국가	178
이어져 내려온 무속신앙	179
불교와 유교의 공존	180
천주교와 기독교의 전래, 사찰령과 탄압	180
적당한 거리 유지, 정부와 종교	181
기복과 대형화	182
12. 한국인의 마음	186
1미리 미리, 빨리 빨리	186
한(恨)	187
복(福)	188
무(無)	190
정(情)	191
귀찮음	193
죽겠어	195
흘가분하다	196
정리하며	198
참고문헌	203

감사의 글

항상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과 친척,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잘 지내는 이웃사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금화초등학교, 인창중학교, 인창고등학교,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총동창회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수많은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 청년자문위원님들, 서대문구협의회 자문위원님들, 중앙부처·서울특별시청·서대문구청·도서관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시민·주민 참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놀았던 시간이 이 책을 구성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각 정당에서 활동하는 의원님, 보좌관, 비서관, 당직자 분들께서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주제를 다각도로 접근하는데 좋았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눈뜨게 해준 서대문교회와 조계사(모두 서울시 종로구 소재), 자신의 일을 마다한 채 열심히 봉사하면서 인연을 맺은 자원봉사자님들 덕분에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한국행정사학회, 한국정책개발학회, 한국취업진로학회, 한국행정학회(신진학자연구회)에서 열심히 연구하시는 수많은 전문가님들께서 학문적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커리어코치협회, 한국강사연구소, 윤코치연구소, 휴멘토리에서 활동하고 계신 전문가님들, SNS로 연결된 많은 분들께서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조

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카페 “대학원 계획, 재학, 졸업자들~~!”에서 친하게 지내는 회원들, 네이버 카페 “통계와 조사나라”에서 친하게 지내는 회원들은 제 인생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VIP FITNESS(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58 경기빌딩 6층)에 계신 선생님들과 회원님들, 미소골프연습장(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 261-2 3층, 서대문성당 옆)에서 계신 프로님들과 회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러두기

1. 이 책은 있었던 사실을 인용하거나 현재 또는 과거의 현상, 상황, 사건을 기초로 작성했지만 저자가 주관적으로 한국 사회 문화를 관찰하고 해석한 부분이 섞였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2. 혹시라도 이 책으로 강연 또는 강의를 하실 분이라면 더 적합한 사실과 견해를 가감 없이 풍부하게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좋습니다. 저자보다 연령, 경험,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이 강연하면 듣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각종 사진이나 동영상 등 자료를 보여주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한 가지 분야를 깊게 적은 책이 아니라 여러 분야를 넓게 적었기에 듬성듬성 빈틈이 많으니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주저 없이 저자에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koreafm@naver.com

koreafmkyj@hanmail.net

저자 소개

 김영재(金英材, KIM YOUNGJAE)

삼공(三公) 김영재는 1983년 서울 서대문에서 태어나 금화초등학교, 인창중고등학교, 단국대학교에서 행정학사, 석사, 박사를 마치고 현재 모교 행정학과에서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서대문구협의회 자문위원을 비롯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청과 서대문구청에서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과 자문을 맡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한국행정사(行政史)학회 간사, 한국정책개발학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청년실업과 취업, 행정의 역사, 정부에 관한 철학과 윤리, 정부에 관한 정보 수집 등에 호기심이 많다. 단국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평택대학교, 국제대학교,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강동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배재대학교, 국립 창원대학교에서 강의했으며 같이 했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과천외국어고등학교와 제주외국어고등학교에서 잠시 특강을 했었는데 앞으로도 꽃길을 걸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koreafmkyj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www.facebook.com/youngjae.gim
<https://blog.naver.com/koreafm>
koreafm@naver.com
koreafmkyj@hanmail.net

한국의 사회문화

이 책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청소년과 젊은층이 태어나기 전에 다양했던 한국의 사회 문화 현상을 알려주고 그 시대를 겪었던 사람에게는 새삼 떠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책이다.

청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가는 필자는 이제 한번쯤 한국 사회 문화를 생각하고 정리할 시점이라고 생각했다. 알고 지내는 어르신과 중년층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더 젊고 어린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내용을 담은 책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영역은 언어, 옷, 술, 돈, 결혼장례, 가족, 주거, 직장, 대중, 교육, 종교,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감정이다. 이 영역을 알면 한눈에 한국 사회 문화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